

FTA와 계육산업

##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전 익 성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농가의 입장에서는 FTA라는 단어만 들어도 걱정이 앞설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위기에 낙담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부도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미/한·EU FTA 체결 시 닭고기의 경우에는 닭가슴살·날개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등 국내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관세 감축에 따른 가격차를 극복하고, 품목별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선 원칙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2007. 11)을 통해 대처해 나가되, 각각의 FTA 특성에 맞게 취약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EU/한·미 FTA 체결 시 마련된 대책을 중심으로 계육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양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형 닭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지침서를 발간·보급하고, 계사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과 LED 조명기구를 보급할 것이다.

농업분야 중에서도 축산분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는데, 그 중에서도 계육분야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난방비 등에 부담이 큰 일부농가는 겨울철에 입식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열난방 시스템이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면 계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노후축사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금이 지역별로 분배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농가가 많지 않다는 불만이 있는데, 더 많은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닭고기 소비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고급육 생산과 가격차별화 등을 위해 닭고기 등급관정을 확대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한편, 자조금을 활용하여 메스컴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기반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육계자조금의 규모를 보면, 한우·돼지 등 타 축종에 비해 거출금액이 크지 않는데, 축종의 특성도 있겠지만 거출률이 높지 않은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육계 종사자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자조금은 농가들이 거출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도 점을 감안할 때 육계농가들이 자조금 거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삼계탕을 수출하여 닭고기의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국, 중국과 도축장 위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위생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닭고기 수요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판촉행사를 지원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도 지원하는 등 해외 신규시장의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셋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질병관리 분야이다. 우선 종계장에서 난계대전염병을 청정화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는 종계·부화장 등에서 추백리, 가금티푸스의 예찰검사를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늘리고 검사대상 질병도 전염성 빈혈, 뇌척수염 등 4종을 추가하여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및 농가공급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문 종계장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병



한·미/한·EU FTA 체결 시 닭고기의 경우에는 닭가슴살·날개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등 국내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아리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종축장 종합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 종계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종계장의 질병근절을 위해 시설기준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몇 차례 AI를 겪으면서 농가들 사이에서도 경각심이 많이 높아져 있지만, 그동안 동절기에 치중되어 있던 AI방역대책을 연중상시방역으로 전환하여 방역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의 22개 시·군을 재발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철새의 분변이나 야생조류를 포획·검사하여 AI 유입가능 경로별로 예찰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농가들께서 제일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농가들은 위험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했다

라도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병이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이외에도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건축되는 축산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으며,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를 추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끝으로 FTA를 시련이 아닌,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육계인들이 지금까지 보여 준 열정과 지혜를 앞으로도 계속 보여 주시기 바란다. 